

# 국내 경제계 대표들 광주 온다

### 내달 5·6일 전국상의회장 회의...60여명 참가 경제 현안 공동 전략 모색·비엔날레 관람도

전국 72개상공회의소 회장들이 광주를 찾는다. 국내 경제계의 대표들이 광주에서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가 오는 11월 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의회장단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에서 머무르며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비엔날레 관람, 사회

공헌활동 등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 전문가인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의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하는 특별 강연도 마련, 눈길을 모은다.

당장 국내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미국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등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광주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의 경우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 관세 부과 조치를 실행한다면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당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미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

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수입 완전자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율이 22.7%로 가장 높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계에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체제에 따른 피해, 지역 주력인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상의 회장단은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하고 일부 회장단은 '사랑의 식당'을 찾아 후원활동도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이번 회의는 전국 72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국내 경제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광주은행, 소비자 권익 보호 실천 서약

### 4분기 경영전략회의...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초빙 강연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6일 오전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송종욱 은행장과 임원, 부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4분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 앞서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금융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윤리준칙 실천 서약식'을 가지며 고객 중심의 영업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소비자 보호 실천의 의지를 다짐했다.

이어 2018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와 4분기 주요 부서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며, 마케팅 우수사례 발표 시간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앞으로의 영업활동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특히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초빙해 '경제기적의 주인공 한민족, 역사에서 찾는 그들의 DNA'라는 주제로 특강 교육을 진행해 임직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송종욱 은행장은 "광주은행의 창립 50주년이 다가오는 2018년의 마지막 4분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뭄될 수 있도록 힘찬 각

오를 다지길 바란다"며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중심 경영을 필두로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은 2018년 상반기에 수도권 영업망 안정화와 다양한 경영효율화 정책들이 성과를 거두며 전년 동기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함께 이룬 50년, 같이 나눌 100년'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50년을 함께 해준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50주년 기념 각종 사업 및 고객 사은 행사를 준비하는 등 100년 은행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가을 입은 '삼성 큐브'

### 광주 생산 공기청정기 메탈 브라운 색상 선보여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삼성 큐브' 신제품이 출시됐다. 지난 2월 첫 선을 보인 '삼성 큐브'는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프리미엄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나무 재질처럼 자연스러운 톤과 유광·무광 사이의 은은한 광택감을 적용해 메탈 특유의 차가움은 털어내고 아늑하고 따뜻한 감성을 더한 게 특징이다.

충격과 오염에 강한 크롬·티타늄을 첨가해 자문이 잘 묻어나지 않고 생활 껍질도 막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집진 필터'를 통한 초순도 청정 성능과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 무풍 청정, 공간에 따라 분라·결합 등 기존의 '삼성 큐브' 기술은 그대로 적용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광주·전남 청년들 글로벌 기업 취업 지원

### 주한네덜란드 대사관, 내달 1일 과기원서 채용 설명회

극심한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인한 '고용 쇼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들의 글로벌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잇따라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역 청년 인재들에게 일본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는 16일 조선대 1층 국제관에서 '2018 일본기업 초청 미니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람회는 지역 우수 인재의 채용 미스매치와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건설·유통·호텔·

컨설팅' 분야를 전공한 자들을 대상으로 일본 중견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에서는 하나투어(여행), 후지타(건설), 칸코쿠히로바(유통), 코리츠메인터네셔널(호텔), 에이산(면세점), 다이고(취업컨설팅) 등 6개 기업이 참여했다.

또 체계적인 일본 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학교 부스'를 운영, 동경외어전문학교(일본어), 핫토리영양전문학교(요리, 제과), 문화복합학원(패션), 도코테크니컬컬리지(인테리어, 정보처리) 등이 참여해 상담을 진행했다.

주한네덜란드 대사관이 오는 11월 1일 광주과학기술원 오픈관에서 여는 '네덜란드 첨단산업 취업 로드쇼'는 유럽 최대 반도체기술연구소 IMEC 등 네덜란드의 첨단 회사와 연구기업에 대한 취업 정보를 들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네덜란드 첨단회사 및 연구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전국의 유능한 이공계 엔지니어, 과학자 및 연구원이 대상이다.

이외 전경련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7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2018 글로벌기업 청년 취업설명회'를 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 함께 하면 든든육아 성공비법

**직장난치문화 제로법**

직장맘 & 대디에게 눈치 주는 대신 '배려'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슈퍼맘 방지법**

육아를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 하는 아빠되기!!

**육아훈수 주의법**

서툼 육아에 '훈수' 대신 '힘들지' 따뜻한 한마디 건네기!!

**육아대디 지지법**

아빠들의 육아에 '칭찬, 격려, 응원'하기!!

**든든육아 동참법**

품앗이 육아, 아이 안전 지킴이, 나무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직장 가족 이웃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

### 광주세관 대전 기업에 공인증서 아이넷, 상생협력사업 선정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6일 대전세관 2층 소회의실에서 '2018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공인된 관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하 AEO)인 아이넷에게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특히 이번 인증서 수여식은 대전에 소재하는 기업 대표가 광주세관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세관에서 개최했다.

아이넷은 '한국서부발전(주) 상생협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선정된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업과 정부가 협력한 결과 공인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아이넷은 고기능성 산업용 실링 및 패킹을 제조하는 전문 기업으로 2007년 설립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원자력발전소용 내방사선 실링 및 패킹제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설계팀, 시험인증팀, 연구개발팀으로 구성된 자체 연구소와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NEP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제품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AEO로 공인받은 업체에게는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며,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장' (이하 AEO MRA)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아이넷은 캐나다, 중국 등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지연을 방지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호 기자 lion@



고객이 '전기차 안심출동 서비스'를 통해 차량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다. <기자재 제공>

## 기아차, 전기차 안심출동 전국 확대

### 배터리 방전시 견인차량 무상 제공

기아차가 전기차 안심출동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

기아차는 기존 제주 지역에서 운영하던 전기차 안심출동 서비스를 전국 규모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전기차 안심출동 서비스는 전기차 주행 중 갑작스럽게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무상 견인 차량을 보내주는 서비스다.

기아차는 서비스 확대 개편을 통해 전기차 고객의 장거리 운행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회사의 브랜드 신뢰도를 높인다

는 계획이다.

새롭게 시행하는 전기차 안심출동 서비스에는 배터리 방전 차량을 가장 가까운 충전소로 이동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집, 회사, 충전소 등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안심출동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건당 2000원의 충전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니로 EV의 경우 2000원 충전시 70km 주행이 가능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145.12 (0.00)	금리 (국고채 3년) 2.05 (0.00)
↑ 코스닥 731.50 (+12.63)	↓ 환율 (USD) 1128.00 (-6.30)